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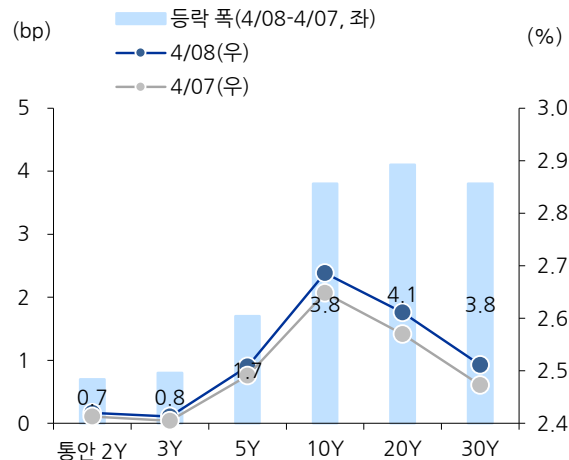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_02)368-6138_jhoonlee@eugenefn.com RA 유재혁_02)368-6177_dbwogur170@eugenefn.com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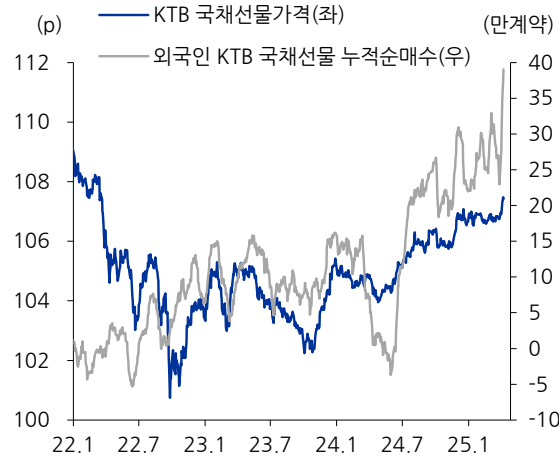
(단위: %,bp, 톱)

| | 4/8일 | 1D | 1W | YTD |
|-------|-------------------|--------|-------|-------|
| 국내 채권 | 한국 국고채 3년물 | 2.413% | 0.8 | -16.8 |
| | 한국 국고채 10년물 | 2.686% | 3.8 | -10.1 |
| |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 27.3 | 24.3 | 20.6 |
| | 3년 국채 선물(KTB) | 107.42 | -6.0 | 50.0 |
| | 10년 국채 선물(LKTB) | 120.19 | -32.0 | 104.0 |
| 해외 채권 | 미국채 2년물 | 3.728% | -4.1 | -15.0 |
| | 미국채 10년물 | 4.296% | 11.0 | 12.7 |
| |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 56.7 | 41.7 | 29.1 |
| | 독일국채 10년물 | 2.622% | 1.5 | -7.0 |
| | 호주국채 10년물 | 4.201% | 13.8 | -1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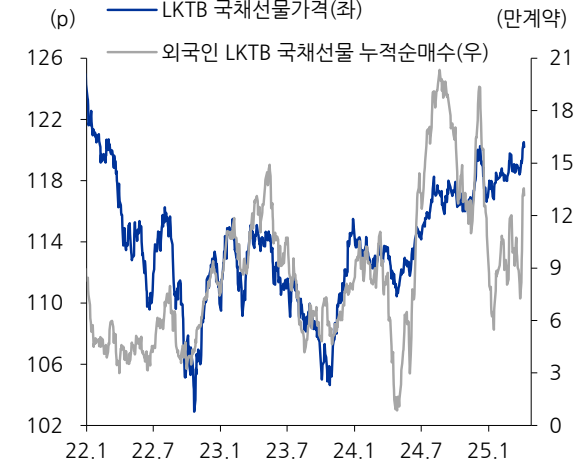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
- 전일 미국채 금리에 연동, 약세 출발. 이후 아시아장 미국채 금리 하락, 외인 국채선물 순매수로 약세폭 축소.
- 다음주 초 발표될 10조원 규모 추경안, 야당은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한 수준이라 평가. 아울러 더 과감한 조치를 요구. 다만 선반영된 수준에 그쳐 금리 영향 제한.
- 한은, 미 관세 충격이 예상 대비 상당히 강하며 장기적으로 불확실성 및 경기 둔화 우려 확대됨을 언급.
- 한편 WGBI 편입시점은 이연. 내년 4월부터 지수 반영 시작하여 11월까지 월별로 편입 비중 확대 예정.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
- 그간 미국채 금리 낙폭을 되돌리는 흐름 지속. 금주 장기물 입찰 앞두고 공급부담 커진 점 또한 10년 금리 반등을 뒷받침.
- 대신 백악관, 중국에 대한 50% 추가 관세(총 104%) 강행 의지 보이자 뉴욕주가는 급락하였고, 금리 상단도 제한되는 모습.
-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금리 조정 전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다고 발언.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현 통화정책은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

자료 출처: 연한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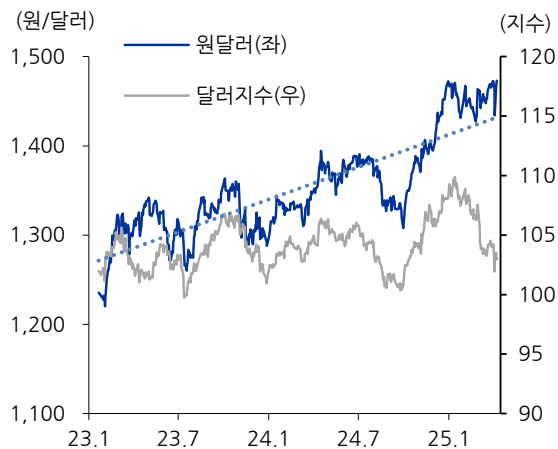


FX & Commodity

(단위: %, \$)

| | 4/8일 | 1D | 1W | YTD |
|--------------|----------|-------|--------|--------|
| 원/달러 | 1,473.20 | 0.4% | 0.1% | 0.0% |
| 달러지수 | 102.97 | -0.5% | -1.2% | -5.1% |
| 달러/유로 | 1.096 | 0.5% | 1.5% | 5.8% |
| 환율 위안/달러(역외) | 7.42 | 1.0% | 1.9% | 1.1% |
| 엔/달러 | 146.27 | -1.1% | -2.2% | -6.9% |
| 달러/파운드 | 1.276 | 0.3% | -1.2% | 2.0% |
| 헤알/달러 | 6.01 | 1.6% | 5.8% | -2.8% |
| WTI 근월물(\$) | 59.58 | -1.8% | -16.3% | -16.9% |
| 금 현물(\$) | 2,983.42 | 0.0% | -4.2% | 13.7% |
| 구리 3개월물(\$) | 8,565.00 | -1.9% | -11.6% | -2.3% |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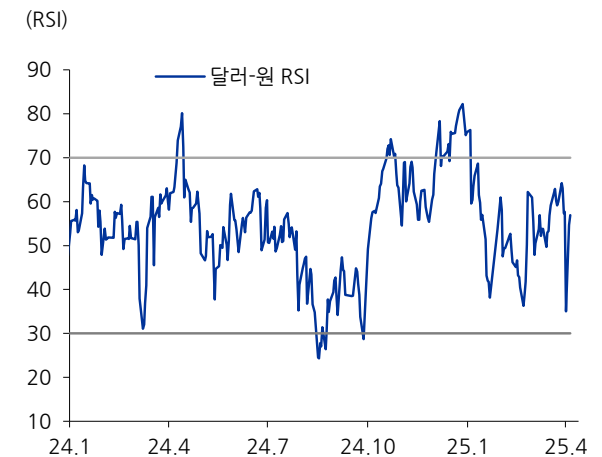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5.40원 상승한 1,473.20원에 마감. 야간거래에서는 1,479.00원 마감.
- 간밤 달러 인덱스는 미국채 금리 급등 속 상승. 달러-원은 +3.20원 상승한 1,471.00원에 개장.
- 오전 중 중국의 위안화 절하 고시에 연동되며 1,473원 선까지 급등했다 달러 약세에 반락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재차 확대. 국내 증시 상승세도 상당 부분 반납되었고,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위험회피 심리 재차 확산.

달러-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 인덱스는 미중 갈등 심화 속 혼조세.
- 장 초반 급등하던 미국 증시는 개장 이후 꾸준히 하락. 반면 전일에 이어 미국채 매도세는 계속되었고, 달러는 오히려 약했으며, 엔화는 강세. 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 확산.
-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9일부터 중국에 대한 50%의 추가 관세, 총 104%의 관세 부과를 발표. 위험 회피 심리 계속.
-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트럼프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며 부정적 공급 충격을 우려. 다만 연준의 대응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